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15주일

제28권 33호(가해) 2008·7·13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묵상]

바람처럼 가볍게 온전한
자유의지로 다가가고 싶어
홀리는 땀입니다.



도움닫기 없이 날아오르는 것
일찍이 본 적 없는 걸요

구상렬 하상 바오로 · 만화가

농부이신 예수님이 복음의 씨앗을 주셨다.
그 씨앗을 우리는 어디에다 심었는가?
복음의 씨앗을 심은 내 마음의 밭은 어떨까?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의 밥이 되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햇볕에 말라버리며,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숨통이 막혀 죽는다.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악한 자에게 씨앗을 빼앗겨 버렸나?
아직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환난과 박해에
쉽게 넘어지는가?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에 씨앗이 숨도 쉬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복음의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이는 행복하다.
처음부터 좋은 땅이란 없다.
도움닫기 없이 멀리 뛰거나 날아오를 수 없듯,
씨앗을 위해 모든 장애를 극복하는 자만이
수고의 열매를 볼 것이다.(人)

미사

수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주일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1째주) 성 시간(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4째주)	종 강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폐제기도모임(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진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 김중돈 스테파노, 고준희 제임스, 황인홍 빅토리아, 최효선 안젤라
	(생) 고천용과 규재 체칠리아 가정, 홍덕이 스텔라, 장성전 베드로와 등에밀리, 민석준 토마스, 민영준 마르코, 토런스 북구역반원들.
주 일 낮 미사	(연) 김중돈 스테파노, 고준희 제임스, 이현호 요한, 이영자 마리아, 김인영 베드로, 정윤봉 베드로, 이기석, 송학래, 최효선 안젤라
	(생) 이금순 마리아, 고천용과 규재 체칠리아 가정, 정우석 루카, 황철수 베드로, 황윤재 베드로, 이종민 요셉, 엄은섭 도로테오, 박다빈 이레네, 권진열 피데스 가정, 최제인 가정, 이석재 베드로 가정, 배진영과 클라라 가정, 김미연과 김필호 가정, 변세연 대건 안드레아, 김광일 스테파노와 인자 요세피나 가정, 천광락야고보와 남숙 리디아 가정, 윤남열 세라피나, 오세호 레이몬드, 홍석인 체칠리아, 구마리아네 수녀님, 박상대 신부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 (Isaiah) 55,10-11

화답송 ◎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었도다.
○ 땅을 굽어보시고 단비를 내리시어, 골고루 가뭄지제 만드셨나이다. 하늘스런 시내에 물을 그득 채우시어 곡식을 장만하기 이렇듯 하셨도다. ◎
○ 이랑에는 물 대시고 흙탕이는 고르시고, 소나기로 풀으시고 새작에는 강복하셨나이다. 은혜로써 연사를 꾸며 주시니, 가시는 그 길마다 기쁨이 들나이다. ◎
○ 사막의 목장에도 방울져 흐르고, 언덕들은 기쁨을 동였나이다. 풀이 난 벌판은 양떼로 입히고, 골골이 밀곡식은 덮여있으니, 노래소리 흥겹게 높으니이다. ◎

제 2독서 로마서 (Romans) 8,18-23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씨는 하느님의 말씀이며,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들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

복음 마태오 (Matthew) 13,1-23 <또는 13,1-9>

영성체송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주님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마련하고, 제비도 제 둥지가 있어 그곳에 새끼들을 치나이다. 주님의 집에 사는 이들은 행복하리니, 그들은 늘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234	240
봉헌	255	256, 259
성체	283	281, 295
파견	383	190

15. 은총의 삶인 성사

▶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성사이다.

인간은 하느님을 직접 볼 수 없다.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성조(聖祖)와 대(人)예언자도 하느님을 직접 대면하지는 못했다. 그저 다양한 표징들을 통하여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였을 뿐이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우주 만물, 인간의 양심,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셨지만, 인간은 하느님과 그분의 사랑을 쉽게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시어 인류 구원사업을 성취하심으로써,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 인간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하느님과 그분의 은총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성사’라고 말할 수 있다.

▶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사이다.

이 세상에서 감각적으로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었던 유일한 중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길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방법으로의 현존은 결국 비가시적인 것이다.

현실 세계의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의 은총을 체험하는 데에 감각적인 표징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상 활동 중에 교회를 세우시어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해 주셨고,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드러내 주셨다. 이제 우리는 볼 수 있는 교회 안에서 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사’이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성사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칠성사 (The Seven Sacraments)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일곱 가지 성사를 제정하셨는데, 이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나 시기에 관계된다. 이는 한 인간의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인생여정에 꼭 필요한 사건들이기도 하다. 일곱 가지 성사는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인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와 성체성사, 치유의 성사인 고해성사와 병자성사, 그리고 친교와 봉사의 성사인 성품성사와 혼인성사이다. 이 가운데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와 성품성사는 일생에 단 한 번만 받으며, 나머지 성사는 시기와 기회에 따라 여러 번 받을 수 있다.

◆(계속-CBCK 제공)

말씀 잘 알아듣기

발을 다쳐 주일미사에 못간 손주가 성당에 다녀온 할머니께 “할머니, 오늘 신부님이 무슨 강론을 하셨어요?” 하고 여쭙었다. “참 좋은 이야기하셨지. 감동받았어.” “무슨 얘지요?” “오다가 다 잊어버렸네.” “그래도 생각나는 것 없어요?” “아! 맞아. 사람은 소꿉지로 살지 말고 젖꼭지로 살아야 한데...”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께 알아보니 “신앙생활을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지.” 이 얘기를 피정 때 했더니 듣고 있던 아주머니 한 분이 “맞는 말이지요”라고 대답하길래 “어떻게 알아들었는데요?” 물어봤더니 “아! 아기들한테 소젖(우유) 먹이지 말고 엄마 젖 먹이라는 소리 아닌가요?” ‘아, 그렇게도 알아들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말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찌 하느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느님께서 제자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들을 알게 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 제자들은 더 알아듣게 되고 이스라엘은 점점 못 알아듣게 된다. 이미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부정적 예정으로 말미암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니 예수님도 알아들을 수 없는 비유들로 말할 수밖에 없다(마태 13,13 참조). 청중이 못 알아듣도록 하려고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비유는 이해하기 쉬운 예화가 아니라 설명을 듣지 않으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라는 것이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만은 따로 비유들을 설명해 주셨다고 한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마태 13,9).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두 귀를 주신 것은 들어야 할 것은 바르고 옳게 들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듣는 것이 비록 싫은 소리라도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잘 들으라고 두 귀

를 주신 것이다. 양쪽 말을 다 들으라는 신체구조이다. 한쪽 소리보다 양쪽 음향이 더 좋다. 한쪽이라도 진리의 말을 들었다면 다 들은 셈이다. 한쪽 귀로 들은 것으로 모자라면 두 귀로 듣자.

시몬 베드로는 고백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서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요한 6,68).

예수님의 말씀을 막연히 들어서서는 안 된다. 귀담아듣고 마음 속 깊이 새겨야 한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특별히 성경에서 많이 듣는다. 성경 말씀을 듣고 응답하도록 불리움을 받은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교회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 신앙인이란 ‘정신을 차리고 하느님 말씀을 듣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이다.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듣는다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분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을 뜻한다. 듣는다는 것은 믿는 것이며 사랑하는 것, 바라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 나누는 것, 구원되는 것, 거룩한 것, 그리고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곧 복음화가 된다. 문학 작품이 사람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고 삶의 의미를 더 풍요롭게 한다면 성경은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고 마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로 향하는 인간 본래의 길로 이끌어 준다. 복음화란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답다’는 ‘담다’에서 나온 말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는 것이다.

“당신들이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당신들은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당신들에게 자유를 줄 것입니다”(요한 8,31-32 참조).

◆박문식 베네딕토 신부<폰텐부알 프란치스코회 관구장>

이번주 전례 봉사자

다음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신덕례 테레사	최진수 에우세비오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정미영 미카엘라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박성규 라파엘	최영신 프란치스코	서병교 라파엘	제1독서자	이태호 바오로	배재일 미카엘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서용숙 에스텔	이혜선 안젤라	제2독서자	이화영 잔다르크	배영민 아나스타시아	권순길 체칠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2/4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2/3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2008/09 백삼위 성모회 첫모임

- 일 시 : 오늘 주일(13일) 미사후 오후 1시, 2층 룸3
- 대 상 : 45~65세 모든 자매, 소공동체 각구역장, 반장
- 모 토 : '기도하는 성모회, 봉사하는 성모회'로 거듭 나서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발전하는 성모회가 되도록
모두가 동참해주세요!

* 연락처 : 회장 오혜숙 루시아

☎ 310-327-8035(집), 310-490-3358(셀폰)

◆ 빈첸시오회 기금모금 어린이옷 판매

봉제업에 종사하는 분이 백화점(Nordstrom)에 납품하는
어린이옷을 매달 200장씩 기증해 주시기로해서 빈첸시오 기
금으로 씁니다. 가격은 1장에 \$6, 2장에 \$10 입니다.
주일미사 후 친교장에서 판매합니다.

◆ 사회복지분과 제10차 홈리스 피플 돕기 행사

- 오늘 주일(13일) 오후 4시 이발봉사, 오후 6시 음식봉사
- 장소 : 롱비치 무숙자 센터 ☎ 310-283-5879

◆ 새임기(2008년 7월~2009년 6월) 사목위원 연수

- 일시 : 7월19일(토) 오후 7시~10시
7월20일(주일) 오후 1시~5시
- 각 분과 부서장들을 연중 계획서를 7월15일(화)까지 총무
부나 사무실에 제출해주십시오.

◆ 레지오 마리에 토요반 개설

지난 10월 새로 창단된 백삼위 레지오 마리에에 새 뿌레시
디움 '자비의 어머니'(여성)가 개설됐습니다. 수요일 여성
'순교자의 모후', 남성 '바다의 별'에 이어 세번째 뿌레시디움
입니다. 교우들의 많은 가입을 바랍니다.

- 주회 : 7월19일(토)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2층교실
- 가입문의 : 최옥희 데레사 ☎ 310-569-3940

주일학교 소식

◆ 새학기 등록

- 접수날짜 : 7월20일~9월7일(매주일 미사 전후)
- 대 상 : 유치부(K)~12학년까지
- 등록비(1년분) : 첫째아이 \$100, 둘째 \$80, 셋째 \$60.
넷째아이부터는 무료(9월8일 이후부터는 \$10씩 추가)
- 자모회비 : 한 가정당 \$40
- ◆ 이번학기부터는 LA교구 요청에따라 liability문제로 등록
하지 않은 학생은 주일학교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
오니 양해바랍니다. ☎ 310-780-0369 강아네스 교장

◆ 고등부 신앙대회(Steubenvill, San Diego)

- 일시 : 7월25일(금)~27일(주일) ●주제 : "Witness"
- * 여름방학을 맞아 고등부 신앙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에
게 건강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 제 17차 남가주 선택주말(CHOICE)

- 미혼(22~35세) 젊은이들이 신앙안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찾는 프로그램인 금년도 '선택주말'에 백삼위 본당에서는
강정현 시몬, 이영호 사도요한, 서유곤 마리아, 송은미 마리
아도미니카, 박수경 스테파노 등 5명의 청년이 참가합니다.
- 일정 : 7월25일(금)~27일(주일)
 - 지도신부 : 김두진 바오로(예수고난회)
 - 장소 : Marywood Retreat Center ☎ 714-713-0131

◆ 굶주린 북한동포 돕기 서명 캠페인에 동참합니다.

남가주사제협의회는 3백만 굶주린 북한동포 돕기 촉구 서명에
각본당별로 협조키로 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정부의 '대
북 인도적 긴급 식량 20만톤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서명
용지는 주일(특전 포함)미사후 성당입구에 비치돼 있습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7월13일(주일) : 토런스 서1반(열무보리밥) \$3)
- 7월20일(주일) : 토런스 동2반(비빔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교무금						성전헌금					
	강덕희	김관기	김교복	김상억	김선제	김선희	김관기	김교복	김선제	김선희	김성현	김양금
	김성현	김양금	김옥보	김원모	김정엽	김정희	김옥보	김원모	김정엽	김정희	김철수	김형순
	김철수	김정순	남명자	노혜숙	문충한	민기남	남명자	노혜숙	문충한	민기남	민소예	박동수
	민소예	박동수	박순자	박인식	박정자	박준구	박순자	박인식	박정자	박준구	배기엽	배진영
	배기엽	배진영	신경훈	신대철	신현화	안태갑	신경훈	신대철	신현화	안태갑	유정복	이근모
	오일순	유정복	윤희동	이근모	이명자	이석제	이명자	이석제	이영숙	이영희	이은록	이재용
	이연행	이영숙	이영희	이은록	이재용	이호미	이호미	장숙환	장영우	장영진	조경림	조윤영
	장숙환	장영우	장영진	조경림	조윤영	주대중	주대중	천광락	최미열	최의수	최희태	홍석철
	천광락	최미열	최의수	최희태	홍석철	황학수	영희가보라					
	영희가보라				합계 : \$4,370							합계 : \$3,555
미사헌금 : \$2,406	2차헌금(자선) : \$927						감사헌금 : 이태호, 김대우, 정동호					

이 주간의 축일 (7월13일~7월19일)

축하합니다.

- 13일 : 예루살렘 주교, 헨리코 2세 황제, 세라피온 순교자, 밀드레다 동정녀, 실라 동정녀
- 14일 : 가필로 사제, 니코데모 은수자, 테우스데딕 주교
- 15일 : 보나벤투라 주교 학자, 에지노 원장, 도날드 증거자, 다비드 주교, 베닐다 순교자
- 16일 : 폴라도 원장, 시세난도 순교자, 비탈리아노 주교, 레넬다 동정 순교자
- 17일 : 클레멘스 순교자, 레오 4세 교황, 알렉시오 증거자, 마리아 막달레나 동정녀, 말셀리나 동정녀
- 18일 : 프레드릭 주교 순교자, 아눌프 주교, 심포로사 순교자, 마리아 동정 순교자
- 19일 : 아르세니오 은수자, 암브로시오 원장, 루피나 동정 순교자, 유스다 동정 순교자, 마크리나 동정녀

남가주 소식

◆ 남가주 레지오 협의회 22차 정기모임

- 일시 : 7월20일(주일) 오후 4시
- 장소 : 성 바실 회관 1층 회의실
- 의제 : 꼬미시움 설립 승인 신청서 제출의 건

◆ 이나시오 영신수련 침묵피정

- 일시 : 8월1일(금)~8일(금)
- 장소 : Mater Dolorosa(예수고난회 피정관)
- 지도 : 박종구 요셉 신부와 예수회원들
- 참가비 : \$800(독방, 숙식제공)
- 문의 : 정도로테아 ☎ 818-764-8950

◆ 꽃동네 제4차 청소년 여름 영성피정

- 일시 : 8월14일(목)~17일(일) 3박4일
- 대상 : 9학년~12학년, 참가비 : \$120
- 지도 : 이유진 신부님
- 신청문의 : ☎ 951-302-3400

◆ 2008년 제21회 남가주 성령쇄신 대회

- 일시 : 8월23일(토) 오전 8시~오후 10시
24일(주일) 오전 8시~오후 5시30분
- 장소 : LA Technical collage, Grand Theater
400 W. Washington Bl. LA
- 강사 : 전달수 신부(남가주사제협의회회장), 임언기 신부(미리내전주성삼성직수도회), 이태석 신부(살레시오수도회), 김두진 신부(예수고난회), 반영역 신부(성령쇄신봉사회지도)
- * 참가비 : \$25, ☎ 213-435-7570
- * 주관 : 남가주 성령쇄신 봉사회

이번 주 단체 모임

모임의 날	오전 9시,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행사의 날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부장 차장 차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최성자 카타리나 529-4337 7/11(금) 오후 7시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3	한길선레 스펠라스터카 782-1025	한길선레 스펠라스터카 782-1025 7/11(금) 오후 8시,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박정애 데레사 618-8499	강인모 데오도시오 780-0369 7/12(토)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톤 619-7763	이명순 크리스티나 619-7763
	3	이호미 엘리사벳 543-4953	이호미 엘리사벳 543-4953 7/19(토) 오전 11시, 성당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씨니 클라라 612-8840	1	엄영숙 마리아 373-5662	엄영숙 마리아 373-5662 7/18(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박희자 마리아 791-3703	박희자 마리아 791-3703
	3	강은진 켈마 214-2290	강은진 켈마 214-2290 7/19(토) 오전 11시, 히코리팍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800-3709	박정희 마리아 800-3709 7/12(토) 오후 8시, 성당
	3	거주지역반으로 배속	대건회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박혜경 레나타 808-5005	박혜경 레나타 808-5005 7/13(주일) 오후 1시30분, 천교장
	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2반 합동 반모임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P.V. 구역 1,2,3,4반 합동 반모임 7/12(토) 오전 11시, 라이언 팍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P.V. 합동 반모임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P.V. 합동 반모임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P.V. 합동 반모임

과학으로 세상보기④

유전적 변이와 개인의 건강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40년 전 의사들은 마취제 췌시닐콜린(Succinylcholine)을 투입한 환자들이 보통은 정상적으로 깨어나지만, 일부 환자들은 마취된 후 깨어나지 않는 원인을 알게 되었다. 그 환자들은 췌시닐콜린에 대한 대사 작용을 느리게 하는 유전적인 특이성을 가지고 있었다. 후에 과학자들은 느린 췌시닐콜린 대사작용이 특정 유전자의 이형(異形) 때문임을 추적해 내었다. 대략 3,500명 중에 한 명 정도가 두 개의 유해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높은 위험 확률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췌시닐콜린 미스터리의 해결은 유전적 변이와 개인적인 약에 대한 반응에 대한 첫 번째 연결 고리였다. 그 이후로, 유전적 특징에 따른 약의 대사 작용의 차이에 대한 자료가 점점 늘어나면서, 왜 어떤 환자들이 특정한 약에서 약효를 얻고 어떤 환자들은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하는지, 또 어떤 사람들은 부작용으로 고통 받는지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다양한 질병에 대하여 개인이 그 질병에 걸릴 위험 가능성 역시 같은 종류의 변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이제 분명하다. 알츠하이머에서 유방암에 이르기까지 질병에 대한 위험 확률과 유전적 변이는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가령 유전적 변이는 어떤 흡연자는 폐암에 걸리고 또 다른 많은 흡연자는 폐암에 걸리지 않은지에 대해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발전은 우리가 맞춤용 치료제 시대에 가까이 와 있고, 유전자 테스트가 병의 위험도를 결정하고 예방 전략과 치료요법을 안내할 것이라는 희망과 과장된 선전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정말로 DNA가 기인한다고 했을 때 DNA의 역할을 밝혀내고 그 DNA의 정보를 의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전자 테스트로 전환하는 것은 여전히 만만치 않은 도전으로 남아 있다. 각종 암, 심장마비, 루푸스, 우울증 등 이런 질병들은 특별한 유전자들의 조합이 니코틴이나 지방이 과다한 식품과 같은 환경적 요인과 충돌할 때 발생하기 쉽다. 이런 다유전자의 상호작용들은 혈우병이나 낭포성 섬유증과 같이 단일 유전자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보다 더 섬세하고 복잡하며,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 테스트가 진료소에 소개되지 않으려면 통계적인 영감과 정밀한 실험의 반복이 필요하다. 그리고 치료법을 확정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 전 과학자들 한 팀이 124가지의 다른 유전자와 네 가지 백혈병 치료제에 대한 저항과 연계시켰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전자 네트워크의 확인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가장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는 이러한 연구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것은 불가항력으로 유전되는 천식, 아니면 작은 환자군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소아암과 같은 질병에 대해서 특별히 더 어려운 제안이다. 많은 임상적 시도에서 DNA를 자원봉사자에게서 수집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때때로 과학자들이 질병과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반응 사이의 상관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꺼번에 12개의 유전자의 발현을 측정하는 유전자 마이크로 어레이 기술은 번덕스럽고 일관성이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 유전자 연구는 터무니없이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 천식, 심장 질환과 같은 몇몇 질병에 대한 유전적 분석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장애와 같은 분야에서의 진척은 느리다. 심한 우울증 또는 정신분열증 환자들에게 어떤 약과 치료가 가장 잘 듣는지 밝히는 실험들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천식과 달리 약에 대한 반응과 유전자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해서 생물학적으로 정량화하기는 어렵다.

DNA 서열의 이용이 더욱 쉬워지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건강 상태를 지배하는 유전자 패턴은 더욱 뚜렷한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일반적인 질병들의 배후에 있는 유전자 변이를 식별하는데 사용될 유전형질 지도처럼 지금 연구 중인 유전적 도구들은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발견을 가속화 시킬 것이다. 다음 단계는 임상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안내하는 DNA 테스트를 설계하고 사용하는 것이다. 만일 병력이 얼마간 지침이 된다면, 이러한 테스트를 표준적인 실습으로 통합하는 데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 심장 마비, 급성암, 천식 발작과 같은 응급질환이 발병했을 때 이러한 테스트들은 신속하게 결과를 낼 때에만 가치가 있다. 결국 광범위하게 맞춤형인 의약품은 제약회사가 원할 때에만 만들어질 것이고, 연구와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필요로 할 것이다. 많은 회사들은 유전적 변이를 시험하는 것이 시장을 제한하고 수익을 낮추지 않을까하고 걱정한다. 지금도 연구자들은 계속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려 한다. 2005년 5월 아이슬란드의 회사 디코드 지네틱스(deCODE Genetics)는 거대한 제약회사 베이어가 포기한 실험적인 천식 치료제가 특정한 유전자 변이체를 가진 170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심장 마비의 위험을 줄여준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보고했다. 그 치료제는 변이된 유전자로부터 생산되는 단백질을 목표로 한다. DNA, 치료제, 질병을 묶은 끈이 서서히 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발견은 앞으로 준비되어 있는 많은 놀라운 일의 전조에 불과하다.

◆<글쓴이 : Jennifer Couzin>